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㉓

逐漸過了寂靜 粗安既息 得到輕安
 有了種種境界出現
 有的不知身子坐在何處了
 有的覺得身子輕飄飄的上騰了
 有的見到可愛的人物而歡喜心的
 有的見到可怕的人物而生恐怖心的
 有的見到可惡的人物而生歡喜心的
 有的見到可愛的人物而生歡喜心的
 有的見到可怕的人物而生恐怖心的

맑고 상쾌하여 망상이 헛것같고 신심도 자재하여 경계따위가 없다.
 이 경지에 이르면 울바로 떨치고 일어나 앉을 한해 공부해 나가야 한다.
 오히려 고목이나 바위같은 그 앞에 다시 또 많은 길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이는 여기에서 혼침에 빠져 머물게 된다.
 또 어떤 이는 약간의 해오를 얻어 시문을 지으며 만족해 함으로써 아만을 드높인다.

以上種種境界都是病 我今予爾門以對
 以上種種境界都是病 我今予爾門以對
 以上種種境界都是病 我今予爾門以對
 以上種種境界都是病 我今予爾門以對

차츰 적정에 이르러 거친 망상을 쉬고 경안에 되는데 갖가지 경계가 나타나게 된다.
 어떤 경우엔 제 몸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모르게 되고
 어떤 경우엔 몸뚱이가 표피하 날아오르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엔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람이 나타나 환희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有的見到可怕의境界而生恐怖心的
 有的見到可愛의境界而生歡喜心的
 有的見到可怕의境界而生恐怖心的
 有的見到可愛의境界而生歡喜心的

이상의 네 경계가 다 병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이에 대처하는 약을 주노라.
 첫째, 화두가 아직 들리지 않고 망상

“화두 들리지않고 망상혼침 많은 사람 ‘염불하는자 누구인가’ 보는 공부하라”

사자 유적업장경적 이로명백
 用功恰當 已走上了正軌的
 用功恰當 已走上了正軌的

과 혼침이 많은 사람은 다시 염불시수의 '수' 자를 보라.
 그럴때에 망상과 혼침이 적어지도록 보아 '누구인가' 가 잊혀지지 아니할 때에 보자 한생각 일어나는 자리를 보게 되리라.

또 어떤 경우에는 두려운 경계가 나타나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하며
 어떤 경우엔 음욕이 일어나는 등 갖가지가 있으니 이 모두는 다 마군인지라 집착하면 곧 병인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 어떤 이는 업장이 비교적 가벼워 이로가 명백하고
 공부에 제대로 들어맞아 바른 계도에 들어서기도 한다.

待一念不起時 即是無生
 待一念不起時 即是無生
 待一念不起時 即是無生
 待一念不起時 即是無生

高聲誦經 妄想若歇 身心自在 沒有甚麼
 高聲誦經 妄想若歇 身心自在 沒有甚麼
 高聲誦經 妄想若歇 身心自在 沒有甚麼
 高聲誦經 妄想若歇 身心自在 沒有甚麼

한생각 일어나지 않을때가 곧 무생이니 능히 일념무생을 보게되매 이를 이룸하여 참로 화두를 본다 고 한다.
 둘째,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에 집착하여 회미에다 공부를 짓고 생멸법으로써 공부하는 이에 관한 것이니 위에서 말한 뜻으로 비유 수 있다면
 곧 한생각 일어나는 곳을 향해 한 생각 오고 감이 없음에 이르리라.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일이 바로 삶이고

대 정스님 (범어사 선원장)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대로 평등한데 그것을 바로 깨우치지 못하고 미혹 빠지니 너와 나,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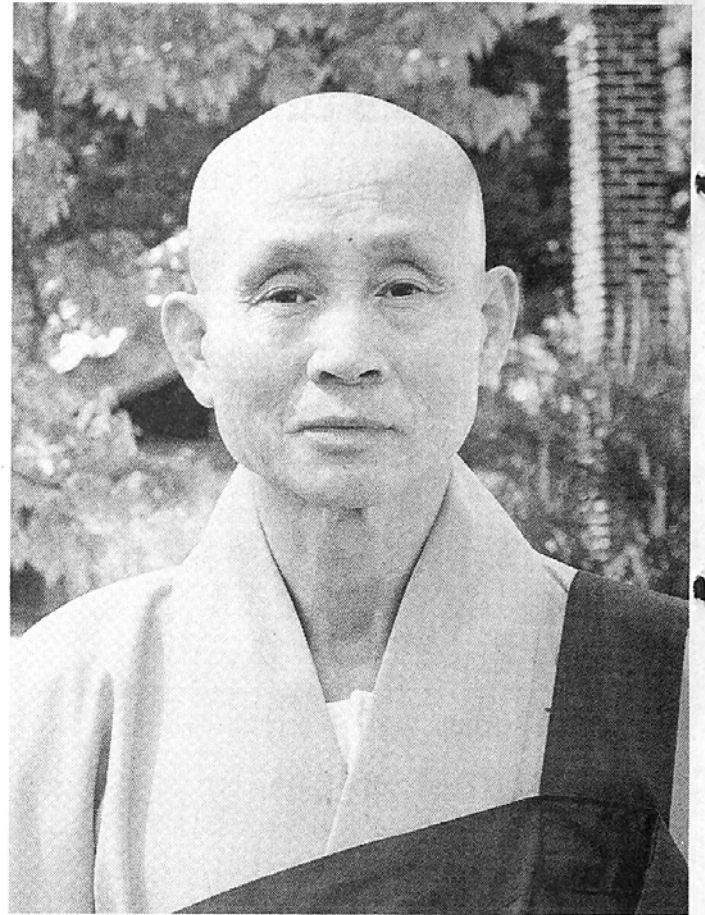
16세에 출가하여 전국의 이곳 저곳을 운수행각하기를 어느덧 50년입니다.
 대구서 태어나 경북중학교를 다니던 시절까지 일제치하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말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도 헛겨 일본식이었습니. 학교는 일본군 훈련장이 되고 학생들은 비행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모든 것이 일본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학도호국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에 징집되었고 요즈음 얘기되고 있는 정신대도 내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15세가 되던해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일제치하의 어려운 시기가 끝나가 싶더니 '좌익이네 우익이네' 하며 세력다툼을 벌여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더구나 보릿고개다 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좌익이 득세하면서 지식인들과 지주들에 대한 처단이 있었고 나도 곤란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친이 14세때 돌아가셨는데 3대독자인 나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셨으니 어린나이 대지주인셈이라 피신을 안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불교에 관심이 많던 할머니의 오라비니 소개로 지리산 쌍계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3일이 걸려 그곳에 갔을 때 산세가 좋고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산내 극사암에는 만공스님의 법제자인 고봉스님이 주석해 계셨는데 특별히 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차마 어려운 처지에서 쫓겨온 사실을 말하지는 못하고 질문을 드렸지요. "스님 좋은 일이 없습니까?" 어린 나이 지만 절박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도(道)를 닦으라며 "도를 깨치면 안되는 일이 없다. 세상에서 알수 없는 것을 알고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어린심정에 뭔가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요.
 진정한 법(法)이라는 것은 말과 뜻과 생각으로는 알수 없는 것인데 생각으로 헤아리려 하니 그럴 수밖에요.
 법을 뜻으로 헤아리고 뜻으로 알려하면 이것은 계산한 것일뿐 결코 법이 아닙니다. 또한 도(道)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말로서는 미칠수도 없고 표현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禪)도 마찬가지입니다. 생

각을 내거나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생각은 필자연정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생각을 넘어선 근본성품, 마음자리를 바로 깨치는 것이 우리들이 일구워야 할 실상 우리모두 몸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불성(佛性)이지요. 이것을 여의면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란 현재 우리가 알고 놓고 가고 오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즉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자체

- 1931년 대구 생
- 1946년 출가
- 1959년 통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수지
- 해인사 범어사 등 선원과 지리산 모악산 등서 토굴수행 정진
- 1989년 이후 현재 범어사 휴휴정사 주석



“불법을 뜻으로 헤아리고 알려고하면 생각은 필자연정 道에 못이릅니다
 생각 여의고 마음자리 알때
 우리 모두 부처님 될 수 있어요”

가 바로 마음이지요, 도라는 것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경 자신의 본래 성품을 살펴 바로 확립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바로 도이며 법이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평등한데 그것을 바로 깨치지 못해 미혹에 빠지고 이로 인해 모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너와 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등 실상 우리의 근본과는 아무 상관없는 현상들이지요.
 부처님이 설하신 대대한 팔만사천법문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경전을 꾸준히 읽어 공부에는 각자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불행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

는 것, 즉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불행하고도 슬프고 기막힌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진정 '참된 인간'이 되는 길 즉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시간부터라도 자신의 근본마음을 바로 알아 나가는 수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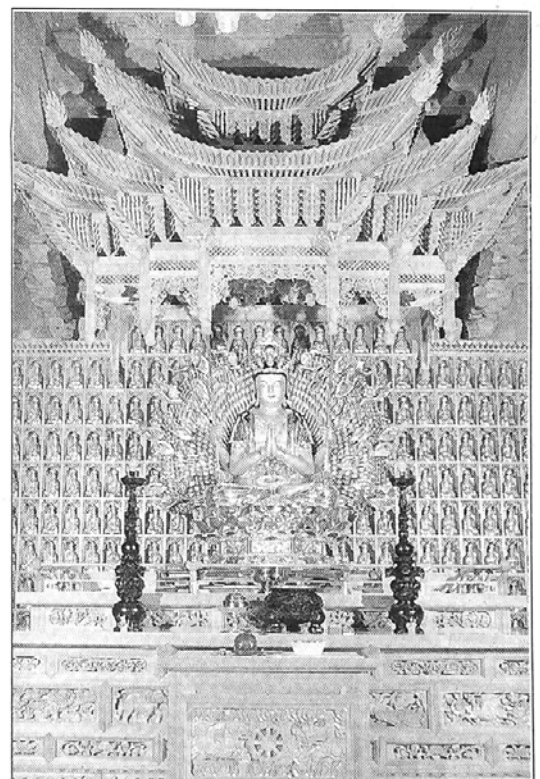
16세까지 1년여를 지리산에서 화전민들과 생활했습니다. 스님들이 염불하시는 것을 귀동냥해 혼자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관음정근을 한 것이지요. 어느날 이를 지켜보시던 고봉스님께서 본격적으로 출가를 권하셨습니다.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의논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대환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인한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짙에 불공드려 나를 낳으셨습니. 내 아래로 다섯동생을 두셨지만 어려서 모두 앓았습니다. 게다가 부친과도 일찍 사별하셨으니 인생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계셨던 참이었는데 그야말로 모자간에 뜻이 통했지요. 어머니는 "속가의 재산이나 그밖의 일을 내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상, 천불조상, 목탱화, 개공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 사 무 실 (02) 738-8447~8
- 공 장 (051) 804-8907
-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